



주요 소식

- 행복도시 중요구역 치안서비스 강화
- 엄정희 행복청 신임차장 취임
- 국립박물관단지의 두 번째 주인공, 국립도시건축박물관
-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

행복도시권 BRT

‘바르타’ 연간 이용객 천만돌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행복도시 중요구역 치안서비스 한층 강화

어진·도담·나성·해밀동 일대를
관할하는 청사 지구대 준공



행복청은 어진·도담·나성·해밀동 일대를 관할하는 신설 지구대인 청사 지구대를 2월 7일 준공하고 세종 남부 경찰서에 시설을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사 지구대는 어진동(1~5생)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922㎡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이 밀집되고 집회가 빈번한 도담·어진동 및 많은 방문객들이 집중되는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등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직원 업무공간, 민원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청사 지구대는 2021년 10월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2023년 2월 착공하여 공사 기간은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존 지구대가 보여준 폐쇄성을 탈피하고, 이용자의 편리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의 교차점에 민원 출입구를 배치하여 개방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한 지구대로 계획되었으며, 24시간 근무하는 경찰관의 휴식을 고려한 쾌적한 업무공간 및 빠른 출동을 위한 동선계획으로 치안 수요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청사 지구대의 준공으로 행복도시의 치안서비스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치안 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세종경찰청, 세종경찰특공대 등 치안 시설이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도시권 BRT ‘바로타’ 연간 이용객 천만 명 돌파

2023년 행복도시권 BRT
6개 노선 이용객 1,123만 명,
2022년 대비 22% 증가



행복청은 지난해 행복도시권 BRT ‘바로타’ 연간 이용객이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도시권 BRT는 2013년 4월 오송역~정부세종청사~반석역 노선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대전에서 오송을 오가는 3개 노선(B1·B2·B4), 세종~청주공항 노선(B3) 등 4개의 광역 노선과 행복도시 내부 순환 2개 노선(B0·B5) 등 총 6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B2(구990번) 노선이 개통한 2013년 연간 이용객 수 64만 명에서 10년이 흐른 2023년 연간 이용객은 1,123만 명으로 약 17배로 늘었습니다.

그간 노선 확충과 더불어 행복도시권 BRT 통합브랜드 ‘바로타’ 출범과 대용량

전기굴절버스 도입, 첨단 정류장 조성 등 특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행복도시권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K-패스’, ‘이음패스’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과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세종~공주 등 BRT 노선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이용객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며, “대중교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BRT 교통망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고 말하였습니다.

*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

엄정희 행복청 신임 차장 취임

- 前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엄정희 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이 2월 13일자로 행복청 신임 차장에 임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엄정희 차장은 연세대학교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30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 이후 약 28년의 근무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정책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종합교통정책관 등 국토·교통·도시건설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외교부 터키 주재관, 세종시 건설도시국장 등의 대외, 정책 및 실무 경력도 균형감 있게 갖추었습니다.

엄 차장은 평소 차분하고 치밀한 업무처리 스타일로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한다는 평가와 함께, 온화한 인품에 기반한 리더십을 갖춰 직원들에게는 덕장으로 불려왔습니다.

엄정희 차장은 “그동안 국토·도시건설 분야 보직을 통해 쌓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안정적인 추진과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행복청,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27개소 건설현장 대상으로 2.23(금)부터 3.31(일)까지 -

행복청은 해빙기를 맞아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건설현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시공실태 등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동절기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시설물 균열·침하·붕괴 사고로 이어지는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23(금)부터 3.3(일)까지 민·관 합동점검단을(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행복청) 구성하여 지반상태, 가 시설물 설치상태 및 안전관련 계획수립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1차점검) 2.23(금)부터 3.3(일)까지 10일간 각 현장별 자체점검 실시

** (2차점검) 3.4(월)부터 3.31(일)까지 28일간 민·관 합동점검단에서 확인점검 실시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건설현장의 해빙기 대비 점검으로 보완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국립박물관단지의 두 번째 주인공 '국립도시건축박물관'

- 도시건축 전문 박물관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도시건축의 발전역사' -



지난해 12월말 행복도시에 문을 연 국립어린이 박물관이 개관 이후 2만 5천여 명이 다녀갈 만큼 화제를 모은 가운데, 뒤이어 국립박물관단지에 들어설 개별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에서 두 번째로 선보일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지난 1월 22일 착공했다고 밝혔고 2026년 하반기 정식 개관이 목표입니다.

2016년부터 세종동(S-1생활권) 일원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에는 어린이박물관, 도시 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이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됩니다.

2031년에는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도 이곳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 도시건축 전문 박물관이자 박물관 단지 내 '최대' 규모 개별박물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도시건축분야 전문 박물관으로, 건축가부터 일반인까지 도시건축의 역사와 그 의의, 비전 등을 폭넓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관련 기록과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도시건축 유산의 연구·교육·전시 등을 통해 건축문화의식 함양과 국가 도시건축 발전의 허브(Hub) 역할을 맡게 됩니다.

2020년 10월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당선작은 현대적 건축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한옥 목조구조의 전통적인 멋과 아름다움을 살렸다는 평을 받습니다. 규모 또한 국립박물관단지 내 개별박물관 중 최대를 자랑합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및 통합수장고, 보존과학실, 분석·연구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도시개발 및 건축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 눈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주제는 '삶을 짓다(한국전쟁에서 세계의 장으로)'로, 6.25전쟁 복구과정에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성장 시대, 그리고 k-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건축연대기와 발전상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시설계안에 따르면 상설전, 기획전, 옥외전, 수장전 등의 전시실과 함께 건물의 발코니 공간에 실제크기의 건축 파사드 전시를 통해 도시건축의 역사를 관통하는 파노라마 뷰가 연출됩니다. 또한 온라인박물관 가상투어, 재생건축 등 미래를 테마로 한 건축가들의 실험마당과 함께 창작 스튜디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실물 모형과 몰입형 영상 등 최첨단 기술에 기반하여 관람객이 직접 과거 속으로 들어가 주택 등 건축물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증강현실(AR) 기획전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부권 문화거점 '국립박물관단지'... 年 100만 명 이상 다녀갈 듯

현재 전국 국립박물관의 40.7%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대규모 박물관은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문화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행복청은 한 번에 여러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국립박물관단지를 거점으로, 인접한 호수·중앙공원, 국립세종도서관, 세종예술의전당과 대통령 박물관을 잇는 중부권 문화와 여가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박물관단지를 찾는 연간 방문객은 약 10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박물관단지팀 이동훈 팀장은 "국립박물관단지는 어린이와 성인, 일반인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콘텐츠 수요를 충족하는 복합문화공간이자 다양한 주체가 온·오프를 넘나들 수 있는 '열린플랫폼'으로 조성 중"이라면서, "어린이박물관에 이어 국립박물관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성공적으로 건립·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도시 완성부터 도시모델 수출까지... 성공 열쇠 쥔 '종합사업관리'

- 철저한 사업공정·일정관리로 차질 없는 도시건설 '착착' -
- 종합사업관리 통한 도시건설 성공노하우 해외 수출길 '활짝' -

지난 1월 행복청은 탄자니아를 방문하여 마잘리와 총리와 수도이전 및 도시건설 협력을 위한 양자면담을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행복청이 수도이전이나 신수도 건설을 추진 중인 국가와 협력MOU를 체결하고 우호관계를 구축한 것은 인도네시아, 이집트, 몽골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이로써 행복도시 건설 사업의 선도적 우수성과 전문성이 국제적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해외에서는 왜 행복도시에 열광할까요? 무엇보다 단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청사 이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청사 이전이 각각 12년과 19년이 걸린데 반해, 행복 도시는 착공 5년 반 만에 명실공히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열었

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된 신도시건설 사업도 8년 만에 인구 20만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은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여러 기반시설 구축 등 다양한 형태의 수십여 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만 해도 중앙정부, LH,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착착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업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종합사업관리'의 숨은 공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사업관리 국제 학회 발표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와 MPAS 통해 건설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높여

종합사업관리란, 다수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건설 환경에서 전체 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최고의 품질로 건설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관리기법입니다. 도시 건설 분야에서는 2007년 국내 최초로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 도입되었습니다. 행복청은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결과 예방,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 조정,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자원의 최적화 등 종합사령탑으로서 효율적으로 공정을 관리하고 예산누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은 또, 실효적인 종합사업관리를 위해 종합사업관리 시스템(MPAS*)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 중입니다. MPAS는 정부, LH, 개발시행자 등 모든 사업당사자로부터 각 건설현장의 공정과 사업비 집행 등 현황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MPAS(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rogram Administration System)

도시건설 현안 및 쟁점 해결사 '종합사업관리회의'

한편, 행복청은 매월 사업주체의 간부진과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종합사업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재정 및 공정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간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복수 공사 사이의 간섭으로 인한 공정 및 일정지연, 주민불편 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업 장애요인이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국회세종지사당 등 국가중추시설의 건립이 확정되고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위상이 높아진 만큼, 행복청은 종합사업관리회의의 조정기능과 총괄 역할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종합사업관리, 국내·외 도시건설 이끄는 '네비게이터'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는 도시건설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로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새만금 개발사업 등 국내 대형 국책사업들이 행복도시 건설노하우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인니·이집트 등 해외에서도 본격적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복청은 최근 국제사업관리협회(IPMA)가 주관하는 크로아티아 프리모스텐 학회 및 스페인 테라사에서 개최된 'IPMA 메가프로젝트 학회'에 참석하여 국제적인 사업관리 동향과 연구 경향을 파악하는 한편, 행복도시 건설 및 종합사업관리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철두철미한 종합사업 관리 운용과 적극적인 건설행정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널리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도시를 알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종합사업관리회의



'바로타' 연간 이용객 천만시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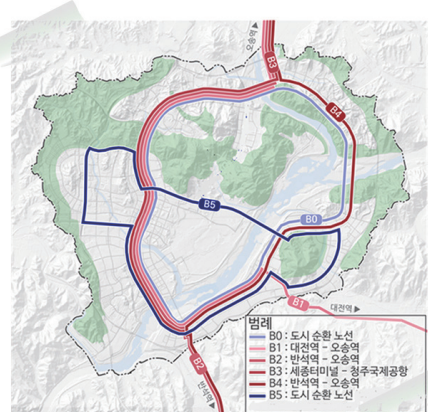


바로타는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다양한 노선과,
스마트한 반개방형 정류장, 대용량 전기굴절버스 등 특화 인프라로
행복도시권을 대표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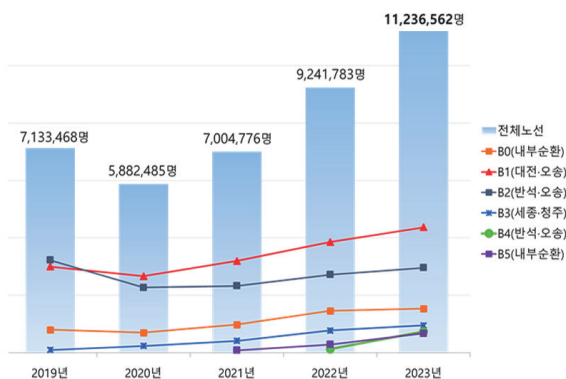
* 바로타란?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권 BRT는
'13년 오송역~세종~대전반석역을 운행하는 1개 노선으로 시작해
현재는 6개 노선이 운행 중이고
앞으로도 세종~공주 등 새로운 노선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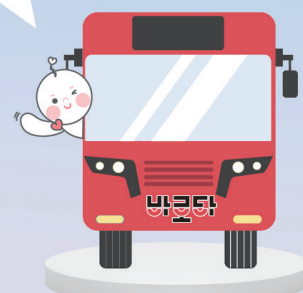


바로타 이용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 연간 이용객 수는 1,123만명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고,
개통 첫 해 64만 명에서 10년만에 17배로 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올해에는 'K-패스', '이음패스'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이고
행복도시권 환승요금체계를
기존 대전~세종에서 청주, 공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바로타' 이용으로 교통비도 절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동참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형렬 행복청장,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오른쪽 세번째 김형렬 행복청장, 네번째 전의요셉의집 장은정 원장

김형렬 행복청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5일 세종시 전의면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전의요셉의집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위문은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설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 설 명절 대비 건설현장 체불점검 등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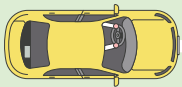


김형렬 행복청장은 2월 6일 행복도시 어진동(1-5생활권) 도담어진지구대 건축공사 및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현황을 청취하고, 설 명절 대비 건설 근로자 임금,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 현장의 관계자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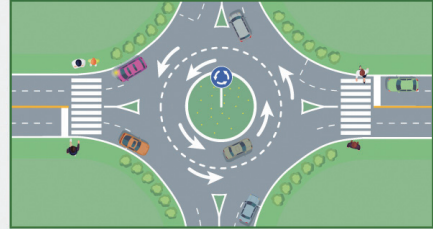
행복도시 많이 보이는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행복도시에 많이 보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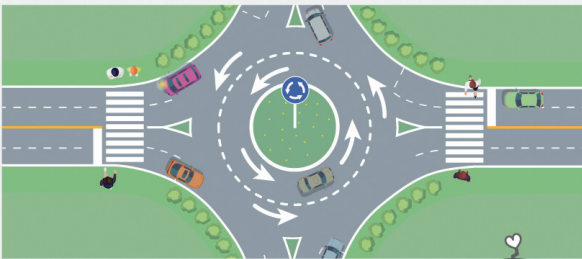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회전교차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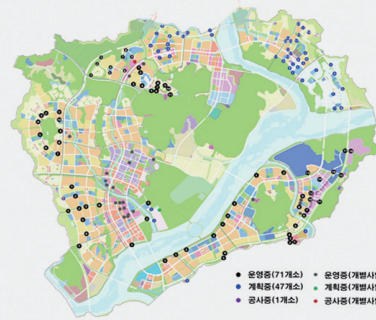
자동차가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교통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에 비해 **사고빈도가 낮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차량의 체제시간이 적어 배기가스를 줄이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행복도시 내 회전교차로가 **총 144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 중 **94개소가 운영** 중이고, **50개소는 계획** 중입니다.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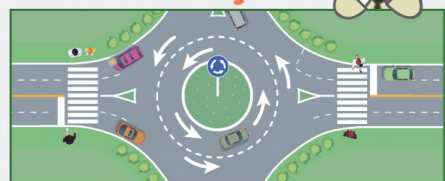
- ①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기다려 주세요.
- ②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회전하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해 주세요.
- ③ 회전교차로를 나갈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 주세요.
- ④ 회전교차로 진입 전과 진출 후에는 보행자를 주의해주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회전교차로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같이
행복도시의 교통 안전을
위해 노력해봐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이와 한글교시(2교시)

알쏭
달쏭우리말
바르게 쓰기

사자성어 배워가기

우	공	이	산
(愚)	(公)	(移)	(山)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

■ ‘널브러뜨리다’와 ‘널부러뜨리다’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아이가 장난감을 온통 널브러뜨렸다. (O) - 아이가 장난감을 온통 널부러뜨렸다. (X)

■ ‘알맞은?’과 ‘알맞는?’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다음 중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X) - 다음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O)



알듯말듯 우리 숙담 알아보기

① 달밤에 [?] [?] 쓰고 나온다.

② 맑은 할수록 늘고 [?] [?] 은 할수록 준다.

* 1교시 숙제 코너 정답

1번 : 벼룩, 파리

2번 : 소

사진으로 보는 행복도시,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꽃을 동기(모티브)로 한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이 곳은 동선의 이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입면을 통해
시각적 즐거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곳은 어디일까요?

ㅈ	ㅅ	ㅅ	ㅈ	ㅊ	ㅅ	ㅁ	ㅎ	ㄱ
---	---	---	---	---	---	---	---	---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려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산림청

모두의 합심이 안전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한파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도로살얼음에 대비, 서행 운전하고 안전거리 확보

수도계량기함을 한 옷, 보온팩 등으로 채우고 밀봉해 동파 예방

수도 동파예방을 위해 1일 이상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기

동상에 걸리면 40°C의 따뜻한 물에 세척 후 보온을 유지하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

겨울철 질식 사고예방을 위해 텐트 등 내부공간에서 화로 사용 금지

복지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두텁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공 통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23년 1600cc 미만, 자동차가격의 50%를 초과으로 선정
'24년 2000cc 미만, 소액 산정해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가족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23년 3급지/1억 1500만 원~2억 2,800만 원
'24년 4급지/1억 9,500만 원~3억 6,400만 원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상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청 년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24세 이하 2022년 2024년
30세 미만 2022년 2024년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 원 추가 확대
40만 원 60만 원
2022년 2024년

장애인·어르신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가족 기준 미적용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재공 재가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73개 시군구 연간 6백 명 228개 시군구 연간 2천 3백 명
2022년 2024년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2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

다인(6인·다자녀(3인)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을 인하
1600cc 이상, 월 100% 2500cc 미만, 월 4.17%
2022년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초등학생 '23년 415천 원 → '24년 461천 원
중학생 '23년 589천 원 → '24년 654천 원
고등학생 '23년 654천 원 → '24년 727천 원

VISIT KOREA YEAR 2023

2024.1.11~2.29

Korea Grand Sale

Korea Grand Sale

Your Special Moment in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VICK VISIT KOREA COMMITTEE

행복청 SNS 채널

페이스북 facebook.com/happycitysejong

유튜브 youtube.com/user/happypsejong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appycitysejong_official

블로그 blog.naver.com/macc2030

트위터 twitter.com/HappycitySejong